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alvin's View and Wesley's on Gradualness and Instantaneousness in Sanctification

유창형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강사, 조직신학, Ph.D.)

Yoo, Chang-Hyung (Lecturer,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Ph.D.)

국문초록

이 논문은 성화의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칼빈과 웨슬레의 견해를 비교 고찰한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는 일관성 있게 성화의 점진성을 말하였으나 그의 주석들에서는 성화의 순간성도 자주 강조하였다. 칼빈은 중생, 회개, 회심, 성화라는 용어들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최초의 회심과 그 이후의 회심 사이도 거의 구별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고집과 죄악성에 대한 순간적인 도살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예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과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심을 예로 들었으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웨슬리는 중생을 최초의 거듭남으로 명료하게 정의했으며 칭의 전의 회개와 중생과 칭의, 칭의 후의 회개, 완전성화, 그 이후의 성장으로 구분했다. 회개와 성장은 점진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중생과 칭의는 동시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완전성화도 순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웨슬리에게 성화는 중생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성화의 점진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에 차이는 거의 없다. 두 학자의 차이는 순간적인 성화에 있는데, 칼빈은 순간적인 성화가 그것이 초기의 회심이든 그 이후의 회심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다고 보는 반면에,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순간적인 완전 성화는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 같은 성화의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제까지 보수적인 한국장로교회들이 성화의 점진성은 잘 강조해왔으나 성화의 순간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의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안수 받은 날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였으며 예수님도 추수할 일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성화는 오랜 동안 많은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빠른 시간에 성취될 수도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 주제어: 칼빈, 웨슬리, 성화, 중생, 회심, 순간성, 점진성.

Abstract

In this paper I analyze comparatively Calvin's view and Wesley's on instantaneousness and gradualness in sanctification. Calvin consistently emphasized the gradualness of sanctification in his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but often stressed the instantaneousness of sanctification in his Commentary. He used regeneration, repentance,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 as the almost same meaning terms, and seldom distinguished between initial

conversion and later conversion. He held that our obstinacy and sinfulness are instantly slaughtered by the sovereign work of God's Spirit. For example, he represented the sudden conversion of Saul in Acts and the immediate repentance of the Ninevites in Jonah. Calvin asserted that such instantaneous conversion can and should happen in our life, too. In distinction to Calvin, Wesley clearly defined regeneration as the beginning of sanctification. For Wesley, repentance before justification, regeneration and justification, repentance after justification, perfect sanctification, and growth after perfection are chronologically distinguished in the whole process of sanctification. Repentance and growth after perfection are gradual, but regeneration, justification, and perfect sanctification are instantaneous. With regard to the gradualness of sanctification, Calvin and Wesley are of same opin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laid on the instantaneousness of sanctification. For Calvin, in some cases, sanctification is instantly accomplished by the sovereign work of God's Spirit, not by human deeds for repentance. For Wesley, perfect sanctification is instantly accomplished by faith as the Spirit's gift, which is given after persistent sanctification by such works of piety and works of mercy.

Up to now Korean preservative churches have well emphasized the gradualness of sanctification, but have relatively neglected the instantaneousness of sanctification. But in the Bible Saul instantaneously changed into a whole new man after Samuel's prayer, and Jesus ordered his disciples to pray in order that the workers to reap may be sent. These imply that sanctification can

be also instantaneously accomplished by God's sovereign work, not only by a long term gradual discipline. Therefore, Korean churches need to emphasize this fact of instantaneous sanctification by God's grace, and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prayer request on these aspects.

※ Key Words : Calvin, Wesley, regeneration, conversion, sanctification, gradualness, instantaneousness.

1. 들어가는 말

칼빈과 웨슬리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의문의 여기가 없을 것이다. 칼빈은 보수주의적인 장로교 신학에서 중심을 차지해 왔으며 개혁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웨슬리 역시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¹ 신학적으로는 흔히 칼빈은 개혁주의자, 웨슬리는 알미니안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왔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¹ 현대 오순절주의는 다섯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서 진보해왔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발전은 “은혜의 결정적인 이차 사역에 의한 회심에 대한 웨슬리의 언급”이다. Stanley M. Burgess and Gary B. McGee edited by,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Grand Rapids: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8), 2; 한국성결교회는 1907년에 김상준과 장빈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들은 둘 다 도쿄에 있는 동양선교회 소속의 성경학교를 졸업했다. 동양선교회는 감리교회 중 웨슬리의 노선을 따르고 있었는데 웨슬리 고유의 색채를 좋아했기 때문에 감리교회로부터 분리했다. Sung-Ho Kim, *History of the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edited by the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trans, Chun-Hoi Heo, Hye-Kyung Heo (Seoul: Living Waters, 1998), 386f; 김리관, 『한미교회분열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5), 85.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선교차원에서 복음주의라는 큰 틀에서 한 형제처럼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되어 왔다.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한국복음주의신학회는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는 신학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논자는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칼빈과 웨슬리의 관점을 분석하여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차이가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칼빈과 웨슬리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 비교

2.1 칼빈의 성화에 있어서의 점진성과 순간성

지금까지 칼빈이 점진적인 성화론을 주장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가노치는 칼빈은 회심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대개 점진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견해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칼빈에게서 갑작스럽고 기적적인 회심의 시작은 단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번에 파멸에서 건져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았다.² 레인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 “칼빈은 그의 개신교로의 개종에 그 자신의 ‘갑작스런 회심’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간주한 것 같지는 않다.”³ 부스마도 “칼빈은 항상 회심의 순간성 보다는 점진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한다.⁴ 반면에 윌콕스는 칼빈이 초기 회

²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문.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251.

³ A. N. S. Lane, "Conversion: A Comparison of Calvin and Spener," *Themelios*, vol. 13, no. 1 (1987-88): 20.

⁴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1.

심 경험과 전반적인 회심 경험을 결코 구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칼빈은 갑작스런 회심 경험을 규범으로 간주했다”⁵고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칼빈 자신의 저작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1.1 칼빈의 성화에 대한 개념

칼빈의 성화론에서의 점진성과 순간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칼빈의 성화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칼빈은 ‘성화’, ‘회심’, ‘중생’, ‘회개’ 라는 개념들을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서정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개념들과는 다소 다르게 사용하므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다소간의 혼란이 예기되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회심은 회개의 과정인데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이키는 것이며 이 돌이킴은 하나님께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육과 옛사람의 죽임, 그리고 영의 살림으로 구성된다”.⁶ 회개는 “우리자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이전 마음을 벗고 새 마음을 입는 것으로 정의된다”.⁷ 이러한 진술에서 우리는 칼빈에게 회심은 회개와 동등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예레미야애가 5: 21의 주석에서 회심과 중생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에 의해 우리를 중생시킬 때 발생하는 내적인 전향(turning)이다”.⁸ 이것은 회심이 중생의 결과 혹은 중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내적인 변화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진술은 “회개가 한

⁵ Pete Wilcox, "Conversion in the Thought and Experience of John Calvin," *Anvil* vol. 14, no. 2 (1997): 121.

⁶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6), 3.3.9. 이하 *Institutes* 3.3.5.

⁷ *Ibid.*

⁸ *Comm. on Lam. 5:21=CO* 39, 644. "*Est conversio interior, ubi Deus nos regenerat spiritu suo...*"

마디로 중생”이라는 그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⁹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성화를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중생될 때 우리 안에 발생하는 분리”라고 정의했는데¹⁰ 이는 성화가 중생의 결과 혹은 중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변화로 말하고 있다. 이런 분리된 삶은 회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발적이고 기쁜 일치”로 나타난다.¹¹ 이런 진술들은 회심과 회개, 성화가 아주 유사한 개념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칼빈은 중생을 “그들(택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정의했다.¹²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 전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리스도와 의 일치, 즉 우리에게 그의 인성과 삶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를 목상함으로 그를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¹³ 이사야 6장 10절¹⁴에 근거하여 그는 회심을 치유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즉 회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데 이것은 일종의 병든 자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회개의 유일한 목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¹⁵ 이것은 회개의 목적이 성화의 목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개와 중생을 “하나님께서 선

⁹ Calvin, *Institutes* 3.3.9.

¹⁰ *Comm. on 1 Cor 1:2=CO 49, 308. "Ea fit in nobis quum per spiritum in vitae novitatem regeneramur, ut serviamus Deo, et non mundo."*

¹¹ *Comm. on Ps. 7:12=CO 31, 85.*

¹² "Whose only soul is to restore in us the image of God." *Institutes* 3.3.9; *Comm. on Gen. 1:26=CO 23, 26. "...regeneratio spiritualis nihil aliud est quam eiusdem imaginis instauratio."*

¹³ *Comm. on Rom. 8: 29=CO 49, 160. "...ut conformes sint Christo, sed imagini Christi, ut doceret vivum et conspicuum exemplar exstare in Christo..."*

¹⁴ "And be converted, and I should heal them" (Isa. 6:10).

¹⁵ *Ibid.*

택받은 자 안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게 하시는 것”이라고 묘사했는데¹⁶ 이런 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런 이제까지 살펴본 진술들은 칼빈에게 있어서 회심, 회개, 중생, 성화가 의미상으로 서로 중첩되며 거의 동등한 개념임을 보여준다.¹⁷

요약하면 칼빈의 성화의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안에서 계속적으로 육의 욕망을 죽이고 전인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성화의 점진성에 대한 칼빈의 진술

칼빈은 성화의 점진성을 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필요성의 견지에서 서술하였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투쟁은 자기중심적인 원리가 결코 족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다. 하나님의 제지가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

¹⁶ *Ibid.*

¹⁷ Cf. William Wileman, *John Calvin: His Life, His Teaching, and His Influence in Books For The Ages* (AGES Software Albany, OR USA Version 1.0 ©1998), p. 15. “...though the somewhat differing terms in essence mean the same as regeneration, conversion, the new birth, and effectual calling, can record it, of himself or of another...”; David K. Winekoff, “Calvin’s Doctrine of Mortification”, *Presbyterion*, vol. 12, no. 2 (Fall, 1987), 88. “Calvin uses repentance, mortification, new life, conversion, and regeneration to denote the same thing as he means by the word sanctification”;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27. “Calvin calls regeneration “rebirth or penitence or renewal, sanctification, conversion”.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중생은 영적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Institutes* 2.3.6).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성화, 중생, 회심, 회개라는 용어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런 칼빈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안토니 후크마와 다르지 않다. 후크마는 “평생에 이르는 의미에서의 회개가 근본적으로 성화와 다르지 않다”고 했으며 “회개와 성화는 그 의미에 있어서 서로 겹친다”고 하였다.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217.

님께 대한 교만하고 무례한 경멸로 광포하게 끊어오를 것이다”.¹⁸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칼빈은 성화의 점진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리고 실로 이 회복은 한 순간에 혹은 하루나 일 년에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느린 전진 속에서 그들의 온 마음을 참된 순결로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택자 안에서 육의 부패를 쓸어버리고 그들을 죄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전과 같이 그들을 그에게로 성별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생애 내내 회개를 실천하고 이 전쟁이 죽을 때에 비로소 끝날 것임을 알게 하신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전 생애 동안 걸쳐 달려야 하는 회개의 경주를 할당해 놓으셨다.¹⁹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설정해놓은 경주과정(a race course)으로 비유된다.²⁰ 비록 그리스도인이 좁은 의미의 중생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는 아직 육으로부터 아무런 성가심을 받지 않을 정도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중생한 사람 안에 여전히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살아 있어서 기회만 되면 죄를 짓도록 우리의 육을 자극한다. 따라서 그는 남아있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한다.²¹

칼빈은 이생에서의 성화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재세례파의 주장을²²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화의 점진성을 말하기도 했다. 비록 신자가 성령

¹⁸ *Comm. on Ps. 19:13=CO 31, 206.* "…quia nisi nos contineat Deus, furiose ebulliet superbia contra Deum."

¹⁹ *Institutes 3.3.9,*

²⁰ *Comm. on Phil. 3:13=CO 52,52.* "Comparat autem vitam nostram stadio, cuius spatium nobis ad currendum definierti Deus…."

²¹ *Institutes 3.3.10.*

²²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부정직과 정직, 의와 불의, 선과 악, 덕과 죄의 구별이 쓸모없으며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결코 빛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Institutes 3.3.14.*

에 의해 성화되지만 신자의 영혼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죄와 무력에 싸여 있기 때문에 재세례파의 주장과는 달리 완전과는 멀다. 따라서 신자는 꾸준히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성화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²³ 이 지속적인 싸움은 신자의 깨어있음을 요구한다.

칼빈은 신자의 영적인 진보가 느린 이유를 신자의 연약함에서 찾았다.²⁴ 감옥과 같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신자는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걸기도 하며 심지어 기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더디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칼빈은 신자의 연약함을 단번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 치유책을 찾는데 인내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⁵ 시편 115편 3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신다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악을 교정하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고 보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잠드신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렇게 빨리 우리의 구원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²⁶

요약하면 비록 신자가 죄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그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덕분에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 약속되어 있으므로²⁷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 신자의 성화가 진보할

²³ *Institutes* 3.3.14.

²⁴ *Institutes* 3.6.5

²⁵ Letter to Mademoiselle De..., the 12th of January 1549; LC 2,233, 205

²⁶ *Comm.* on Ps 115: 3=CO 32,185. "*Avaritia, fraudes, perfidia, crudelitas, ambitio, superbia, libidines, ebrietas, omne denique genus corruptelae hodie grassatur in mundo: quae mox cesaarent si D^{ei} placeret adhibere remedium. Quare hoc nobis tolerantiae fraenum sit, dum videtur torpere Deusvel facultate destitui ad opem ferendam, nolle tam subito, quia moram et dilatiolatione ferre quae momento corrigere posset, si liberet.*"

²⁷ *Comm.* on Rom 6:6=CO 49, 108. "...non quod statim desinamus in totum

것은 확실하다.²⁸ 이런 진술을 통해 볼 때 칼빈에게 “성화는 전 생애에 걸친 거룩과 경건의 성장과정”이라고 한 샤프의 말을 타당성을 갖는다.²⁹

2.1.3 성화의 순간성에 대한 칼빈의 진술

미가서 4장 3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순간적 성화를 패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교정으로 설명했다. 즉 “우리 육의 사악함과 패역성 때문에 우리 중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교정에 의해서 최초의 굴복시킴이 없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³⁰ 칼빈은 하나님의 최초의 교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편 81편 14절의 주석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돌과 같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기 전에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³¹ 이러한 마음의 갱신은 창조 그 자체에 비견할 만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되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관한 주석에서 칼빈은 “잔인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성향을 굴복시킬 때 비로소 상해하는 행위를 삼가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³²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순간적인 회심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제시하였다. 즉 “경건에 대한 참된 교리를 몰랐으며 경건의 원리에 물들지 않았던 니느웨

peccare, sed ut simus tandem in pugna superiores."

²⁸ Letter to the Duchess of Ferrara, June 10, 1555; LC 3, 384, 129.

²⁹ Larry D. Sharp, "The Doctrine of Grace in Calvin and Augustine," *The Evangelical Quarterly*, vol. 52, no. 2 (1980): 85.

³⁰ *Comm. on Mic. 4:3=CO 43, 345.* "...denique hic notatur malitia et perversitas carnis nostrae, quia nunquam se offerrent Deo etiam optimi quique, nisi prius subacti, et qualiter? Nempe violenta correctione Dei."

³¹ *Comm. on Ps. 81: 14=CO 31, 766.* "...non esse hanc conversionem in libero hominum arbitrio, donec ex cordibus lapideis Deus carnea reddiderit."

³² *Comm. on Isa. 65: 25=CO 37, 434.*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에 의해서 그렇게 갑자기 회심되었다”³³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심으로서의 성화에는 순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도 보인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참된 종교와 경건을 극도의 증오로 대했던 사람들이 예외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감화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동시에”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에 익숙하게 하였는데 이는 실로 놀라운 회심이라 할 만하다”.³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성령의 비밀스런 움직임”에 의한 삭개오의 “빠른 굴복과 복종”을 말했다.³⁵ 삭개오의 회개는 선행의 열매를 동반하는 참된 회개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인정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파격적이 제안을 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과 인도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의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돌려주겠다는 선포, 즉 성화된 삶의 스타일로 살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이다. 이것은 순간적인 회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에 관한 주석에서 칼빈은 순간적인 회심을 하나의 규범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좀더 명료하게 보여준다.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사울의 심령을 “돌 같은 심령에서 갑자기 살 같은 심령으로” 바꾸었다. 즉 사울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부드러움을 받았다.³⁶ 칼빈은 이 사건을 “우리의 회심의 시작”으로 이해했다. 그런 회심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완고함을 변화시켜서 가르침을 받기에 적절하게 (유순하게) 하

³³ *Comm. on Jon. 3: 6-8=CO 43, 253. "...Ninevitae, qui nunquam veram pietatis doctrinam gustaverant, qui nullis rudimentis fuerant imbuti, tam cito conversi fuerint ad Ioniae praedicationem?"*

³⁴ *Comm. on Haggai 3:7-9=CO 44, 105.*

³⁵ *Comm. on Luke 19:1-10.*

³⁶ *Comm. on Acts 9:6=CO 48, 203. "...cor autem Pauli ex ferreo repente carneum evasit, postquam illi a spiritu data est mollities..."*

신다.³⁷ 우리는 칼빈이 순간적인 회심을 하나의 규범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주께서 우리의 육을 죽이실 때 그는 사울에게 했듯이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복종시키신다” (흘림체는 나의 강조임).³⁸ 또한 칼빈은 사도행전 16장 29절의 주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시적인 표적을 보이심으로 간수를 한순간에 교만에서 끌어내려서 “가르침을 받기에 적합하게 온유하게 만드시며”, 그와 같이 “우리도 교만에서 겸손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치시거나 거꾸러뜨리신다”고 말했다.³⁹ (흘림체는 나의 강조). 이런 관점은 시편 주석 서문에 기록된 “갑작스런 회심”에 관한 칼빈 자신의 경험과도 일치하는 것이다.⁴⁰

사울의 갑작스런 회심과 칼빈의 갑작스런 회심,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칼빈의 주석 속에서 살펴본 것을 고려한다면 순간적인 회심이 칼빈에게서 규범이 아니라 예외라는 가노치와 레인, 부스마의 견해는 지지되지 어렵다. 오히려 순간적인 회심이 규범적이라는 윌콕스의 견해가 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칼빈은 점진적인 회심을 기독교 강요에서 일관성있게 강조하였으므로 윌콕스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성화에서 점진성과 순간성은 둘 다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균형잡힌 견해일 것이다.⁴¹

³⁷ *Comm. on Acts 9:5=CO 48, 202. "...ut prae fractos cordis nostri affectus mutet, quo nos sibi dociles habeat."*

³⁸ *Comm. on Acts 9:5=CO 48, 202. "...quum carnem nostram mortificat Deus, non aliter nos subigit quam Paulum."*

³⁹ *Comm. on Acts 16:29=CO 48, 388. "...nunc timor docilem ipsum reddit ac mansuetum. Quoties ergo nos percellet Dominus, vel aliqua consternatione tanget: hoc sciamus fieri, ut in ordinem ex nimia altitudine cogamur".*

⁴⁰ CO 31, 21. "...qui pro aetate nimis obduruerat, subita conversione ad docilitatem subegit.

⁴¹ 칼빈이 초기 회심과 그 이후에 신자들의 지속적인 회심을 구별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간수의 초기 회심을 우리의 반복적인 회심에 적용된다고 말했으며, 마 26:75의 주석에서 베드로의 눈물 속에 보여진 순간적인 회심을 말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칼빈은 신자들의 지속적인 회심에도 순간성이

2.1.4 최초 회심으로서의 성화는 순간적이고 확정적이다

성화의 즉각성은 다른 각도에서 고찰될 수 있다. 칼빈은 단회적인 성화, 즉 결정적 성화를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한 적이 있다. 필립 야곱 스페너가 심각한 죄를 범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회심이 필요한 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간주한 반면에 칼빈은 그들을 “훈련이 필요한 방황하는 양들”로 간주했다.⁴² 이것은 칼빈이 사람이 한번 하나님께 회심하면 아무리 그가 심각한 죄를 범하더라도 여전히 신자로 남아있다고 보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회심은 단 한 번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칼빈의 견해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관한 그의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비록 “중생이 실제로 그들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더라도” 그들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중생 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그리스도인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 즉 그로 인해 영혼의 죽음이 발생하는 죄)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로의 최초의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이와 같이 단회적이다. 칼빈에게서 이런 단회적이고 확정적 회심으로서의 성화는 순간적이다.

2.2. 웨슬리의 성화에서 점진성과 순간성

2.2.1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개념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개념은 칼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그는 중생은 일생을 거쳐 발생하는 영적인 갱생이라는 칼빈의 광범위한 정의와는 달리 중생은 단지 성화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했다.⁴³ 웨슬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⁴² Lane, "Conversion" *Themelios*, vol. 139, no.1 (1987-88): 20.

리에게 성화는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성: 칭의 전의 회개, 칭의: 관계적인 성화, 중생, 칭의 후의 회개, 완전 성화. 즉 웨슬리는 인간의 주관적 체험의 순서에 따라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였다.

칭의 전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최초의 움직임”이며⁴⁴ 이것은 성령에 의해 각성된 사람이 진지한 결심으로 새로운 영적인 순례를 시작할 때 발생한다. 이 회개는 “교정에 대한 진지한 결심과 참된 갈망을 산출하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다. 칭의 전의 회개는 내적인 죄보다는 실제적인 죄와 관계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형제를 용서함,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함,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주님을 순종함이다.(Matt 6:14, 15; 7:7; 25:29). 웨슬리는 이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불렀으며 이때의 믿음을 종의 믿음이라고 불렀다. 이 회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율법의 저주를 자각한 사람은 그의 온 힘을 다해 죄와 투쟁한다. 그러나 그가 죄와 투쟁하면 할수록 죄의 강한 사슬을 깨닫는다.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죄짓는다. 마침내 그는 죄를 극복하기에 너무나 무능력한 자신을 깨닫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꼬!”⁴⁵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고 악하고 혐오스런 것들만이 거하도다” 라고 부르짖게 된다.⁴⁶ 위와 같은 웨슬리의 묘사에 비추어 볼 때 웨슬리에게는 칭의 전의 회개가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오, 영의 가난함, 자기 의의 부정이라는 콜린스의 분석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⁴⁷ 자기 의에 대한 부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이르게 한다.⁴⁸

⁴³ *The Works of John Wesley* 14 Vols., edited by Thomas Jackson (London: Wesleyan Methodist Book Room, 1872. 3rde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vol. 1, 225. 이후에는 *Works* 1, 225.

⁴⁴ Wesley, *NT notes*, Matt. 3:8

⁴⁵ Sermon IX. “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 in *Works* 5, 104-05.

⁴⁶ Sermon XXI “Sermon on the Mount”, 1.4, in *Works* 5, 253.

⁴⁷ Kenneth J. Collins, *Scripture Way of Salvation: The Heart of John Wesley's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56.

⁴⁸ 웨슬리는 율법에 속한 회개와 그 열매를 믿음에 의한 칭의 전에 필수적이라고

두 번째 단계인 칭의는 관계적인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칭의를 통해서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⁴⁹ 이 단계에서 죄와 사단의 결박은 부서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지옥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⁵⁰ 그러나 칭의된 자는 모든 죄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죄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지는 못한다. 즉 완전히 순수한 심령은 가지고 있지 않다.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는 칭의된 상태, 즉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⁵¹

세 번째 단계는 중생인데 이것은 칭의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 번에 동시에....그의(신자의) 죄는 지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⁵² 중생은 성화의 부분이며 성화의 입구(porch, gate, entrance)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내적, 외적 거룩은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

보았다 [Wesley, A Farther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Part I. 2. 4, in Works 8, 52. “[O]ur Church inculcates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she nevertheless supposes repentance to be *previous to faith*, and fruits meet for repentance” (my emphasis)].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처음에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고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할 수 없으며 회개 없이는 참으로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A Farther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Part I. 2.10, in Works 8, 56]. 이런 의미에서 칭의 전의 회개는 초기 칭의를 위해 원인적으로(remotely)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믿음은 초기칭의를 위해 근인적으로 (proximately) 필수라고 할 수 있다 [A Farther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 Part I. 2.11, in Works 8, 57,58].

⁴⁹ Sermon IX. “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 in Works 5, 106.

⁵⁰ *Ibid.*, p.107.

⁵¹ Collins, 105.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지 않으며 칭의를 과거 죄의 사면과 하나님에 의한 수용으로 보았다. 최종칭의는 초기칭의 시에 내재하는 의의 실현에 의존한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는 칼빈보다는 로마 가톨릭에 가깝다. 비슷한 견해로 다음도 보라. Ralph Del Colle, “John Wesley’s Doctrine of Grace in Light of the Christian Trad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vol. 4, no. 2 (2002): 184-85. 웨슬리와 카톨릭의 차이점은 웨슬리가 회개와 선행을 최종칭의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대신에 카톨릭은 그것들을 최종칭의의 공로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가 칭의의 시작을 중생으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그것을 주입된 의로 본다.

⁵² Sermon XIX. 1, in Works 5, 223.

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⁵³ 중생은 모든 선한 기질을 마음에 심는 것이다.⁵⁴ 즉 중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야수적이고 악마적인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으로의” 내적인 변화이다.⁵⁵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간의 전 영혼 안에 만들어지는 변화”이다. 성화의 과정의 전체가 아니라 성화의 시작이지만 총체적인 변화이다.⁵⁶ 즉 보편적인 내적인 변화이며 영과 혼과 육의 전체적인 갱신이며 거룩케 함이다.⁵⁷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마음의 갱생이고 신적인 형상의 회복이며 우리의 거룩한 구속자의 패턴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일치할 계속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화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묘사이다.

웨슬리에 따르면 중생자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와 같지만 그가 믿음, 소망, 사랑, 기도의 영과 감사 안에 거한다면 외적인 죄와 하나님의 쓰여진 율법에 대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않을 수도 있다.⁵⁸ 칭의시키는 믿음을 가진 중생자는 모든 외적인 죄에 대한 지배권과 내적인 죄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⁵⁹ 이런 면에서 “가장 강한 의미에서의 중생은 완전 성화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매독스의 견해는 타당

⁵³ Sermon XLV. 4. 3, *in Works* 6, 74; Sermon CVII. "On God's Vineyard", 1,7, *in Works* 7, 205.

⁵⁴ Sermon CVII. 1. 7, *in Works* 7, 205.

⁵⁵ Sermon XIV, "The Repentance of Believers," 3. 2, *in Works* 5, 169. In a letter to Richard Morgan, Baker, ed., *Letters*, 25:369 (to Richard Morgan, Sr. Jan. 15, 1734).

⁵⁶ Sermon XLV. "The New Birth," 2.5, *in Works* 6, 71;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in Works* 9, 459.

⁵⁷ Sermon III. "Awake, Thou That Sleepest," 1. 2, *in Works* 5, 26.

⁵⁸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12, *in Works* 11, 375-76. "This is the glorious privilege of every Christian, yea though he be but a baby in Christ"; Sermon XIX.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II, 2, *in Works* 5: 226.

⁵⁹ Minutes of Some Late Conversations, Answer to Q.7, *in Works* 8, 276.

하다.⁶⁰ 이 중생이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는 가져다주지 못한다. 즉 내적인 죄가 신자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생한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를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웨슬리의 중생이 내적인 성화라는 콜린스의 이해는 타당성을 가진다.⁶¹ 그러나 매독스가 지적했듯이 중생자가 아직 내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외적인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신자 안에 있는 내적인 죄는 필연적으로 바깥으로 표현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⁶²

성화의 세 번째 단계는 칭의 후의 회개이다. 이 회개는 죄책이나 정죄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⁶³ 이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라고 불린다. 그것은 “육적인 마음, 즉 악에 기울기 쉬운 성향, 다시 타락하려는 심령, 계속적으로 영을 거스리는 육신의 성향”에 대한 자책감이다.⁶⁴ 복음적 회개는 심령이 온통 죄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변화하는 것이다.⁶⁵ 율법적 회개가 외적인 죄와 관계한다면 복음적 회개는 내면적 죄와 관계한다. 즉 육적 본성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⁶ 내적인 죄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신자들은 칭의된 후에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육의 행위들을 죽이고 날마다 그것들을 약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뿌리 뽑지는 못한다.⁶⁷ 오직 주님의 또 다른 축복만이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육적

⁶⁰ Randy L. Maddox,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Kingwood Books, 1994), 159.

⁶¹ Kenneth J. Collins, *Scripture Way of Salvation: The Heart of John Wesley's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04.

⁶² Maddox, 182.

⁶³ Sermon XIV. "Repentance of Believers", 1.16, in *Works* 5, 163.

⁶⁴ Sermon XLIII. 3. 6, in *Works* 6, 50.

⁶⁵ Wesley, NT note, Mt. 3:8.

⁶⁶ Sermon XIII: "On Sins in Believers," 3.2, in *Works*, 5: 147.

인 마음의 악한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칭의 후의 순간적인 구원”, “두 번째의 변화”가 없다면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인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⁶⁸ 따라서 신자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부착된 죄, 생략의 죄, 그들의 심령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 이런 상태는 결국 신자를 또 다른 축복으로서의 완전성화를 추구하게 한다.

완전성화란 무엇인가? 크리스텐센은 웨슬리의 완전성화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의지를 힘있게 하는 결과를 동반하는 구원에 뒤따르는 은혜의 경험”이라고 보았다.⁶⁹ 그의 관점은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의 성화라는 측면을 빠뜨렸다. 웨슬리는 구원의 견지에서 완전성화를 “우리의 모든 죄, 교만, 자기의지, 분노, 불신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였다.⁷⁰ 구원은 초기칭의를 넘어 완전성화에 이르러서 완성된다. 완전성화는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나누어지지 않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⁷¹ 사랑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완전성화는 “순수한 사랑, 죄를 내어 쫓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과 삶을 다스리는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⁷² 그것은 “죄를 배제하는 사랑이요, 심령을 채우는 사랑”이다.⁷³ 완전한 성화를 사랑으로 묘사하는 것은 웨슬리에게 두드러진 표현이다.

⁶⁷ Sermon XIV. “Repentance of Believers,” 1.19-20, in *Works* 5, 164-165. “Though we watch and pray ever so much, we cannot wholly cleanse either our hearts or hands.”

⁶⁸ Sermon XIV. “Repentance of Believers,” 1.20, in *Works* 5, 165.

⁶⁹ Michael J. Christensen, “Theosis and Sanctification: John Wesley’s Reformulation of A Patristic Doctrin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vol. 31, no.2 (1996): 71.

⁷⁰ Sermon XLIII. Scripture Way of Salvation 1, 9, in *Works* 6, 46.

⁷¹ Telford, ed., *Letters* IV, “To John Newton,” May 14, 1765.

⁷² Letter CCCLXXXVII to Mr. Walter Churchery, of Brecon, London, Feb. 21, 1771, in *Works* 12, 432.

⁷³ Sermon XLIII. “Scripture Way of Salvation,” 1.9, in *Works* 6, 46.

결론적으로 초기성화나 칭의 전의 회개나 이후의 회개, 완전성화의 구별을 떠나서 본다면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즉,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⁷⁴ 성화는 “은총에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며,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다.⁷⁵ 완전성화를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최종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성화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⁶ 종교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면 성화는 “우리의 주시고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일관성 있게 따름으로 그와 내적, 외적으로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⁷

2.2.2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의 점진성

위에서 성화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를 살펴보면 우리는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은 주로 칭의 전의 회개와 칭의 후의 회개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면은 죄에 대한 자아의 점진적인 죽음이지만 본질적인 성화의 의미는 칭의 후의 회개라고 할 수 있다. 중생 후에 신자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⁷⁸ 웨슬리는 이것을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가 되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 사람은 완전성화 후에도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계속

⁷⁴ Minutes of Some Late Conversations between the Rev. Mr. Wesleys and Others Conversation I, "On Tuesday Morning June 26th, was Considered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in *Works* 8, 279.

⁷⁵ Sermon LXII. "The End of Christ's Coming," 3, 5, in *Works* 6, 276.

⁷⁶ "Letter CCCCLVII to Mr. Joseph Benson, London, Dec. 28, 1770," in *Works* 12, 415.

⁷⁷ Cf. Frank Whiling, edited by *John and Charles Wesley* (New York: Paulist Press, 1981), 300.

⁷⁸ Sermon XLV "The New Birth," 4.3, in *Works* 6, 75

자라난다.⁷⁹

성화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에 속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더 죄에 대해 죽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점점더 살게 된다.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전진하는 것이다.⁸⁰

웨슬리는 칭의 후의 회개를 은혜 안에서 신자의 “지속성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⁸¹ 이 표현은 칭의 후의 회개가 점진적 성화라는 말과 같다.

2.2.3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의 순간성

성화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웨슬리에게 성화의 순간성은 중생, 완전성화와 관계가 있다.

중생시의 순간성에 대해서 웨슬리는 산모가 아이를 순간에 낳는 것으로 비유했다. “어린 아이가 한순간에, 적어도 짧은 순간에 엄마로부터 나오듯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한 순간은 아닐지라도 짧은 순간에 태어난다”. 성화는 “모든 죄로부터의 순간적인 구원이며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주어진 순간적인 능력을 포함한다”.⁸²

칼빈과는 달리 웨슬리는 칭의 후에 성화가 완성되는 또 다른 순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은혜 안에서 느끼고 느낄 수 없는 성장 뿐 만 아니라 당

⁷⁹ Sermon LXXXV.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2, 1, in *Works* 6, 509.

⁸⁰ Sermon XLIII, "Scripture Way of Salvation," 1, 8, in *Works* 6, 46.

⁸¹ Sermon XIV. "Repentance of Believers", 3, in *Works* 5, 157. Cf. Maddox, 182.

⁸² Letter CLXXVI.- To Miss Furly, afterwards Mrs. Downes, ST. IVES, September 15, 1762, in *Works* 12, 96.

신을 압도하는 전능하신 이의 능력에 의해서 한 순간에, 눈 깜빡이는 순간에 죄를 완전히 멸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을 그의 완전한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기를!”⁸³ 완전성화는 믿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웨슬리는 믿음에 의한 완전 성화를 말씀에 의해서 빛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행위와 같이 순간적인 것으로 보았다.⁸⁴

웨슬리는 순간적인 성화에 대한 기대가 점진적인 성화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죽기 전에 순간적인 변화를 열렬히 기대할수록 신자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점진적인 일을 더 빠르고 꾸준하게 진행시킨다”. 그런 기대는 모든 죄에 대해 더욱 깨어있게 하고 “더욱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주의하게 하며 선행에 더 열심 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령을 지키는데 더욱 정확하게 한다”.⁸⁵

요약하면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본다면 칭의 전의 회개는 점진적이고, 칭의와 중생은 순간적이며, 칭의 후의 회개는 점진적이고 완전 성화는 순간적이고, 완전성화 이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의 성장은 점진적이다. 웨슬리가 순간적인 성화를 강조했다라는 면을 고려해볼 때 “하나님의 능력주 심과(empowering) 책임있는 협력 안에서의 점진적인 여행으로서의 성화의 개념이 웨슬리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다”라는⁸⁶ 매독스의 진술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매독스 보다는 콕스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웨슬리에게 성화는 “달로 가는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⁸³ Letter DCCCV to Miss Cooke, BRISTOL, *September 24, 1785, in Works 13, 94.*

⁸⁴ “If it be by works, then certainly these will need time, in order to the doing of these works. But if it is by faith, it is plain, a moment is as a thousand years. Then God says: (in the spiritual, as in the outward worl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is light.” “Letter DCCLXXXII. To Miss Hester Anne Roe Jan. 7, 1782”, *in Works 13, 83.*

⁸⁵ “Minutes of Several Conversations between the Rev. Mr. Wesley and Others: From the Year 1744, to the Year 1789, Answer 7 to Q. 56”, *in Works 8, 329.*

⁸⁶ Maddox, 190.

로켓처럼 순간적인 단계들을 가지고 있는 점진적인” 과정이다.⁸⁷ 즉 웨슬리 역시 성화의 순간성과 점진성을 둘 다 강조하였다.

2.3 칼빈과 웨슬레의 관점 비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주로 성화의 점진성을 강조하였다. 성화는 일생 동안 경주해야 하는 죄와의 싸움이다. 죽기 전까지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성화의 불완전성이 성화의 점진성과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그의 주석에서는 회심(성화의 개념과 유사한)에 있어서의 순간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의 회심인데 그는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규범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니느웨 백성들의 갑작스런 회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였다. 그들은 회심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요나가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민족적으로 겸비하여 굴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순간적 성화의 예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성화가 인간의 노력이나 준비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웨슬리 역시 성화의 점진성과 즉각성을 둘 다 말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성화가 점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순간적인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⁸⁸ 칼빈의 성화에 대한 개념이 회심, 회개, 중생과 혼재되어 묘사된 반면에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시간적인 순서로 묘사되어 있다. 칭의 전의 회개, 칭의와 중생, 칭의 후의 회개, 완전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 여기에서 칭의와 중생, 완전성화는 순간적이고, 칭의 전후의 회개, 완전성화 후의 성장은 점

⁸⁷ Leo George Cox,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University of Iowa: Ph. D dissertation, 1959), 155.

⁸⁸ John Wesley, Journal, 5 December, 1762, in *Works* 3,123.

진적이다.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순간성이 칼빈과 다른 것은 칼빈의 순간성은 회심의 결정성과 관계되어 있는 반면에 웨슬리의 순간성은 이 세상에서의 성화의 완전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과 칼빈의 순간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간섭을 강조하는 반면에 웨슬리는 완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철저하고도 오랜 준비를 말한다는 점이다. 웨슬리는 완전성화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달성된다고 하였지만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체로 인간의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⁸⁹ 그 준비는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에 힘쓰는 것, 즉 성화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칼빈도 물론 성화의 수단을 성실하게 사용함에 의한 점진적 성화를 말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회심에는 별다른 인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웨슬리는 인간의 노력을 요하는 점진적 회개와 믿음에 의한 순간적 성화를 강조하지만 칼빈은 순간적인 회심에는 인간의 노력이 차지할 어떤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는 하나님의 도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어도 그 순간은 인간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사울과 니느웨 백성들을 도살하고 믿음의 회개를 발생시킨다. 물론 요나의 말씀 선포와 같이 성화의 수단이 작용한다.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주이심을 선포하셨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듣는 자들 편에서의 어떤 오랜 준비와 노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면에서 칼빈의 순간적인 성화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이다. 거기에 비하면 웨슬리의 순간적인 회심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인간의 노력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말한다. 아니 어떤 면에서 점진적인 회개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 단계 같다. 마치 복음의 자유에 이르기 전에 율법의 정죄가 필요한 것과 같다.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 인간은 회개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⁸⁹ Works 11, 402

인한 의와 거룩에 소망을 둔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완전성화도 온전한 인간의 노력 끝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달성된다. 다소 단편적인 고찰이지만 성화의 순간성에 대한 두 신학자의 비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알미니즘의 경향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성품과 삶의 스타일의 순간적인 변화에 있어서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결단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단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의 결과로 발생한 순수한 선물인지에 대한 강조점이 두 신학자의 주된 차이 같다.

요약하면, 칼빈은 점진적 성화에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순간적 성화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회개를 위한 신자의 노력에 의한 준비(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한다)가 믿음에 의한 완전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성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은 인간의 노력과 준비라는 조건을 요구한다.

2.4 칼빈과 웨슬레의 관점에 목회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성화의 순간성에 관한 이런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가 목회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웨슬리의 목회에서는 분명 완전성화에 대한 열망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속에 남아있는 외적, 내적인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삶의 성화를 강조하여 거의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반면에 부작용으로는 지나치게 이차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몰입하다보니 조지 벨의 경우에는 황홀경에 빠진 나머지 자신이 완전하다는 의식에 의해서 지상의 종말의 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만에 까지 도달했다.⁹⁰ 또한 찰스 웨슬리가 주장했듯이 순간적인

⁹⁰ "Bell asserted that his Perfection rendered him infallible, above temptation, and superior to the instructions of all persons who were not perfect."

은총에 의한 완전에 대한 집착은 성도들로 하여금 히스테릭한 증상을 가져 오게도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소간에 외식적인 태도를 취 하기도 하였다.⁹¹

대조적으로 칼빈의 목회에 있어서는 대체로 점진적인 성화를 강조함으로 별다른 황홀경적인 경험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완전성화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오히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성화의 불완전성을 강조함으로 다소간에 성도들이 성화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때로 이것을 치리로 늘렸고 교회의 훈련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악하고 게으른 본성을 다스렸다. 이것은 칼빈의 성화론이 다소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띤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전적타락을 강조한 결과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고 교만과 황홀경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칼빈의 성화의 순간성은 결정성과 연계해서는 인간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안심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연결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미하게 했다. 점진적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인간의 노력에 강조점이 있고 순간적 성화는 예정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점이 있다. 그러나 순간적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칼빈의 실제적인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는 미지수다.

3. 나가는 말

이 짧은 논문 속에서 논자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성화를 교회에서 가르침에 있어서 성화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함으로써 얻어

Letters from John Fletcher to Lady Huntingdon, May 9, 1763: Fletcher, vol. II, p. 85.

⁹¹ W. Stephen Gunter, *The Limits of "Love Divine": John Wesley's Response to Antinomianism and Enthusiasm* (Nashville: Kingswood, 1989), p.153.

지는 점진적인 성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순간적인 성화도 강조함으로써 삶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성화의 지극히 미미한 성취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고 단지 죽음 후에 오는 온전함을 기대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칫하면 세상 속에서 외식적이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다소간에 예방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위한 가르침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한 순간적인 성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의 결단을 요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놀랍고 압도적인 임재에 의한 짧은 순간에 의한 변화이다. 우리가 왜 사울이 순간적으로 바울과 같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니느웨 백성이 갑자기 회개하고 겸비했던 것과 같은 거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를 주저해야 하는가? 이 말세에 오랜 훈련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급격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창조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때로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되는 가르침이 아닌가? 이 시대는 우리를 일평생에 걸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나가는 점진적 성화와 더불어 어느 순간에 나를 압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한 순간적 성화를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리관. 『한미교회분열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5.
- Bouwisma,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Burgess, Stanley M. and McGee, Gary B.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Grand Rapids: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8,
- CALVIN, JEAN.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 by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Berolini, Apud C.A.Schetschke et Filium, 1863-1900. New York and London: Johnson Reprint Corporation. Frankfurt am Main: Minerva, G.m.b.H.
-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by John Calvin*. Trans. the Rev. James Anderson, vol.4.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49.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Trans. Henry Beveridge. SAGE Software Albany. Oregon © 1996.
- Letter to Mademoiselle De..., the 12th of January 1549 LC 2, 233, 205. LC는 *Letters of John Calvin*. Vols. I-IV. Ed. by Bonnet, Jules. English Translation of Vols. I-II. Edinburgh, 1835-37. Vols. III-IV. Philadelphia, 1858의 약어임.
- Letter to the Duchess of Ferrara, June 10, 1555; LC 3, 384, 129.
- Christensen, Michael J. "Theosis and Sanctification: John Wesley's Reformulation of A Patristic Doctrine."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Vol. 31, No.2 (1996): 71-94.
- Collins, Kenneth J. *Scripture Way of Salvation: The Heart of John Wesley's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Cox, Leo George. *John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University of Iowa: Ph. D dissertation, 1959.

-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 Gunter, W. Stephen. *The Limits of "Love Divine": John Wesley's Response to Antinomianism and Enthusiasm*. Nashville, TN: Kingswood, 1989.
-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9.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Kim, Sung-Ho. *History of the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Ed. by the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Trans. Chun-Hoi Heo, Hye-Kyung Heo. Seoul: Living Waters, 1998.
- Lane, A. N. S. "Conversion: A Comparison of Calvin and Spener". *Themelios*. Vol. 13, No. 1 (1987-88): 19-21.
- Letters from John Fletcher to Lady Huntingdon, May 9, 1763: Fletcher, Vol. II, p. 85.
- Maddox, Randy L,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Kingwood Books, 1994.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 Sharp, Larry D. "The Doctrine of Grace in Calvin and Augustine". *The Evangelical Quarterly*. Vol. 52, No. 2 (1980): 84-96.
- Telford, ed., *Letters IV*. "To John Newton." May 14, 1765.
- Wesley, John. *The Works of John Wesley*. Ed. by Thomas Jackson. London: Wesleyan Methodist Book Room. 1872. 3rde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 , *notes On the Whole Bible the New Testament by John Wesley*. Original-Bristol, 1754. SAGE Software Albany. OR USA Version 1.0 ©, 1996.
- , *The Letters of John Wesley*. 8 vols. Ed. by J. Telford. London: Epworth, 1931.
- Whiling, Frank. Ed. *John and Charles Wesley*. New York: Paulist

Press, 1981.

Wilcox, Pete. "Conversion in the Thought and Experience of John Calvin". *Anvil*. Vol. 14, No. 2 (1997): 113-28.

Wileman, William. *John Calvin: His Life, His Teaching, and His Influence in Books For The Ages*. AGES Software Albany, OR USA Version 1.0 ©1998.

Winekoff, David K. "Calvin's Doctrine of Mortification". *Presbyterion*. Vol. 12, No. 2 (Fall, 1987):85-101